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사례

A Case study on the Housing Environment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김진희* 안옥희** 조영미***
Kim, Jin-Hee An, Ok-Hee Jo, Young-Mi

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settlers in our country, we need a societal system which they can adapt well in.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in our society, the marriage immigrants who especially plan a life in a new environment should be supported with support programs, especially to help them adapt to their very basic housing environment as their daily environment. From this research, through a program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re, the societal support helping to adapt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marriage immigrants in each nation was examined, and grasp an understanding on their adaptation to the housing environment by conducting interviews about housing environment adaptation examples.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100 progra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could be seen that for the marriage immigrants to adapt, various programs are needed. In other words, there are effective programs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marriage immigrants such as Korean education, tradition culture education, provision of district daily information, but it could be seen that heavier education was needed for, than for the sake of the marriage immigrants who took such education.

Through adaptation case examples of 8 marriage immigrants from 5 different countries, it was realizable that the housing problems the marriage immigrants go through, are not limited to themselves, but also are related to the safety of their family and adaptation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by developing an adaptation program to help with housing environmental adaptation, the lives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will be supported, and will support early settlement, which then basic preparation for human resources as district societal use will be needed. By developing a program with a housing environmental professional, and if there is a positive effect and achievemen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standard program system available for all marriage immigrants.

키워드 : 결혼이민자, 주거환경, 적응사례

Keyword : Marriage immigrants, Housing environment, Adaptation

1. 서론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가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이주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55,408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즉 한국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다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여

성과 남성 모두)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계획하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인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라별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주거환경 적응사례에 대하여 파악하여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 정희원(주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학술박사.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II. 이론적 고찰

1. 결혼이민자의 현황

2009년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보고를 보면, 1995년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는 3.4%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1.5%로 나타난다 <표 1>. 한편, 최근 2~3년 동안 국제결혼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에고로 중국교포의 국내입국 및 취업이 용이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표 1. 국제결혼 현황(총건수)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건수	백분율
1995	398,484	13,494	3.4
2000	334,030	12,319	3.7
2001	320,063	15,234	4.8
2002	306,573	15,913	5.2
2003	304,932	26,658	8.4
2004	310,944	35,447	11.4
2005	316,375	43,375	13.6
2006	332,752	39,690	11.9
2007	345,592	38,491	1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 2008

2008년 광역 시·도별 국제결혼 건수를 살펴보면<표 2>,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건수와 구성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한국남편의 외국부인의 건수가 한국부인의 외국남편의 건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시·도별 국제결혼 현황 (단위 : 건, %)

지역	한국남편의 외국부인		한국부인과 외국남편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6,004	20.6	2,835	30.3
부산광역시	1,429	4.9	464	5.0
인천광역시	1,534	5.3	413	4.4
대구광역시	921	3.2	226	2.4
광주광역시	595	2.0	71	0.8
대전광역시	636	2.2	75	0.8
울산광역시	606	2.1	75	0.8
경기도	6,409	22.0	1,848	19.8
강원도	807	2.8	105	1.1
충청북도	926	3.2	143	1.5
충청남도	1,467	5.0	135	1.4
전라북도	1,312	4.5	120	1.3
전라남도	1,507	5.2	139	1.5
경상북도	1,719	5.9	185	2.0
경상남도	2,004	6.9	229	2.4
제주특별자치도	289	1.0	89	1.0
전국	29,104	100.0	9,351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 2008

2.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문제점

대구경북연구원(2008)의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

태조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차적 갈등은 언어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면 해소할 방법이 차단되어 더욱 심각한 갈등양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본국에서의 저학력 여성인 경우,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 학습 진도의 부진함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언어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립되거나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문화적 갈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전통문화, 생활패턴, 의식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갈등이 더욱 커진다. 특히 본국에서는 겪지 못한 한국의 시대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적응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갈등양상은 첨예화된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리로 인한 문화적 갈등은 여성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부부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분담은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의 갈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기후적 환경, 국민성 등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생활패턴 역시 차이가 나타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및 갈등요인 또한 한국사회의 적응 및 통합을 돕기 위한 연구들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다.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하며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여 바로 동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습득해온 문화를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익힐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생활습관이 다른 데서 오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나타났다.(유용식, 2008)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설동훈, 윤홍식, 2005)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온 기간별로 동화주의 혹은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화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비율을 보면 한국에 온 지 1~2년 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다원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년 미만의 경우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한 1~2년 경

과된 사람들의 경우는 모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4년 경과자의 경우는 다시 동화주의가 강세이고 5년 이상이 되면 다원주의가 조금 증가한다(고숙희, 2008).

이에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주거환경 적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로 이루어졌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100개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센터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조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 결혼이민자 인터뷰

1) 조사대상자

주거환경 적응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중 5개 나라,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차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 이민 온지 최소 4년 이상인 자로 주거환경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결혼이민자들의 특성

이주해온 나라	결혼이민자	연령	이민년수	거주지역
중국	결혼이민자A	40세	5년	대구시 북구
	결혼이민자B	31세	6년	대구시 달성군
일본	결혼이민자C	40세	11년	대구시 서구
	결혼이민자D	43세	13년	대구시 달성군
베트남	결혼이민자E	24세	4년	대구시 남구
	결혼이민자F	26세	5년	대구시 달서구
필리핀	결혼이민자G	27세	5년	대구시 동구
캄보디아	결혼이민자H	24살	4년	대구시 북구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거환경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의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 : 1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평균 3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여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고 현장노트와 함께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과 주거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기초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IV. 결과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구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2006년 5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대책 주관부처로 여성가족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2006년도에 21개 센터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8년에 80개소이었던 것이, 2009년에 20개소가 신규로 승인받아 2009년 1월 현재 100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의 선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복 설치를 배제하고, 시·군별 결혼이민자 수, 센터간 거리, 시·도 추천 우선순위, 기존 이민자 관련 활동기관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다.

표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2008년	4	3	3	3	2	2	1	9	31
2009년 신규	-	1	1	-	-	-	1	1	
신규지역	-	기장	달성	-	-	-	울주	평택	
계	4	4	4	3	2	2	2	1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8년	6	5	5	7	10	10	9	1	69
2009년 신규	2	2	2	2	3	3	2	-	
신규지역	평창 인제	괴산 진천	홍성 서산	고창 순창	함평 회순 곡성	울진 의성 영천	함안 남해	-	
계	8	7	7	9	13	13	11	1	
계									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표 5>와 같다. 반드시 수행하여야할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취·창업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의 필요에 의해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가장 기초적인 주거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는 1곳도 없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읍단위 이하의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의 주거환경과 다른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지

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타사업으로 주거환경 적응 프로그램이나 적응을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예

지원 프로그램	과정명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과정 등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등
	가족상담	자녀교육, 개별·집단·가족상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취·창업지원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 향상교육, 영농기술교육 등
기타사업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
	정서지원	한국여성들과의 멘토링(멘토-멘티 맺기), 동아리활동 발표, 모국문화소개 등
	결혼이민지역량강화	상담원양성과정, 다문화강사양성, 컴퓨터교육, 공예기술교육 등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 축제, 다문화이해교육, 캠페인 등
	전문인력양성사업	강사보수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등

2.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사례

2-1. 중국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에서의 주거환경과 현재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의 만족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나는 중국의 그래도 잘사는 곳...하얼빈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거환경 비슷해요. 하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 온돌...난방시설이 좋아요. 중국은 추우면 아파트 전체...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불편해요. 한국은 집마다 사용할 수 있어요.(결혼이민자A)

사는 정도나 주거환경이 중국보다 좋아요. 만족해요. 한국 오래된 집이라도 주거환경은 내가 살았던 집보다 좋아요.(결혼이민자B)

중국과 한국의 주거환경의 차이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경우는 집안에서 신발 신고 생활해요. 잠자는 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높아요. 잠자는 곳 신발 벗고 들어가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생활해요. 한국 집은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손님이 오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발 냄새가 나요. 또 중국은 거실이 없거나 아주 작아요. 부엌을 거실과 따로 사용해요. 하지만 한국 집은 거실과 부엌을 같이 사용해요. 특히 음식 할 때 나오는 냄새 때문에 중국보다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B)

중국의 결혼이민자 2명은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2년이 걸렸으며, 이민 온 이후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2-2. 일본

일본 결혼이민자는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주거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주거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죠. 한국 집은 구조가 단순한데 일본 집은 구조가 복잡하고 특이하잖아요. 주택이라는게 길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깐 아주 큰 차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단이 있고 없고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단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집은 화장실, 부엌이 단이 낮아요. 벽지 같은 것도 자주 갈아야 해요. 일본은 묽으면 되요. 장판도 일본에서는 나무로 하거든요. 한국은 떨어지면 갈아야 하잖아요.(결혼이민자C)

일본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을 분리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화장실과 욕실을 같이 사용해서 아침에 힘들어요. 일본에서는 욕실을 굉장히 깔끔한 공간으로 사용하는데...화장실과 같이 사용한다는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집은 방음시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결혼이민자D)

일본의 결혼이민자 2명은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2년이 걸렸으며, 이민 온 이후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2-3. 베트남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한국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베트남에서는 가난했어요. 주거환경이 한국보다 별로였어요. 지금이 아주 좋아요.(결혼이민자E)

베트남과 한국의 주거환경의 차이는 느끼고 있었다.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해서 난방시설이 필요 없어요. 한국은 날씨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겨울이 추워요. 하지만 난방시설은 좋아요. 난방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또 베트남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고, 나무침대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이거 적응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또 한국 집은 신발을 벗고 생활해야 해서 청소를 너무 자주 해요.(결혼이민자E)

베트남은 가스렌지 등이 잘 없어서 나무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냄새, 연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엌은 집과 떨어져 있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어요.(결혼이민자F)

베트남 결혼이민자 2명은 한국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1년이 걸렸으며, 이민 온 이후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2-4. 필리핀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필리핀에서의 주거환경과 현재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의 만족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거환경의 차이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한국 집에 만족해요. 처음에는 달라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필리핀 집은 나무인데, 주택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 사용하는 거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또 필리핀은 한 공간에 주방, 화장실이 있었는데 한국 집은 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내공간이 만들어져서 좋아요. 필리핀은 시끄러워도 별로 신경 안 쓰요. 하지만 한국은 시끄러우면 안돼요. 그리고 물 나오는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필리핀은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이용해요.(결혼이민자G)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2년이 걸렸으며,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2-5. 캄보디아

캄보디아 결혼이민자는 캄보디아에서의 주거환경보다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주거환경의 차이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은 살기에 아주 좋아요. 매우 만족해요. 한국 시설 다 좋아요. 살아보니깐 한국은 좋아요. 캄보디아는 주방이 한국이랑 틀려요. 물도 다 틀려요. 한국은 틀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 따뜻하게 하는 시설 좋아요. 캄보디아는 벽이 나무로 되어있어요. 바닥 나무예요. 하지만 한국은 벽에 벽지 바르고 바닥에 장판을 해요.(결혼이민자H)

캄보디아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6개월이 걸렸으며,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I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와서 겪는 주거환경 적응에 관한 어려움은 비단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성 확보 및 자녀의 적응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주거환경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적응을 돕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거환경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에 대한 면담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좀 더 발전된 단계의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전통문화교육, 지역생활정보제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대체로 한국의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지만, 본국의 주거환경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본국의 주거환경의 장점과 한국의 주거환경의 장점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계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이선 외(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6-02-07
2. 노세희(2007),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1~186, 20(3), 2008.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2008. 10.
5. 차성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강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53~264, 2008.
6. 유용식,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입국 및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7(2), 2008.
7. 설동훈, 윤홍식,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

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47~265, 2005.

8. 고숙희,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3~234, 19(1), 2008.